

# 박원순 "남북관계 긴장고조, 서울시 대피시설 전면 점검"

서울시의회 출석 "식수 공급하는 상수원 가상해 훈련해야"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 입력 : 2017.08.29 16:58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82916522210592&type=1> [복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최근 남북관계 긴장고조 상황과 관련 "서울시 곳곳에 마련된 대피시설 같은 경우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출석해 최근 고조된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시장은 "을지훈련에서도 강조했듯 연습은 실전처럼 해야 하고 서울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상수원도 여러 경우를 가상해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에 남북긴장이 오히려 고조되고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이나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과정을 거쳐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교류를 확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그래서 북방뉴딜이나 뒷문전략, P턴 전략을 주장해왔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방뉴딜은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동북아라는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을 말한다. 핵심은 유라시아 철도 연결이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결, 하산 연해주 일대의 러시아 땅과 우리의 자본과 기술, 북한과 중국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박 시장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이어진 '유라시아 순방' 현장에서도 줄곧 북방뉴딜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